

□ 발기취지문

미래대연합(가칭)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미래대연합(가칭)이 개혁의 길, 미래의 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우리는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다.

진영과 이념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민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협력이  
꽃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민생이 위기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로 나라는 선진국인데,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은 불안  
한가.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모두 불안하다.

국가 경제는 상위권인데, 왜 국민 삶은 OECD 최하위권인가.

이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다.

시민의 책임도, 시장의 책임도 아니다. 정치의 책임이다.

미래도 위기다.

오늘의 삶도 불안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도 불안하다.

양극화와 초저출생이라는 기저질환 위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글로벌  
전환의 복합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 대전환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  
인가, 우리에게는 합의된 방향이 없다.

리더십의 위기다.

더 본질적인 위기는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실종이다.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 넣고 있다. 대화와 협력은 사라졌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 길로 가려면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 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권력을 다투는데는 열심이였으나 국민 삶을 바꾸는데는 무능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기득권 양당 내부의 혁신 동력도 소멸된 지 오래다.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합리적 시민이 선택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심의 명령이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연대 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불안한 미래에서 희망의 미래로 갈 수 있다.

우리는 민주적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 다음 다섯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첫째,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셋째,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전략, 협력전략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넷째, AI,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낼 것이다.

다섯째,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미래대연합은 욕망의 연합이 아닌, 비전의 연합, 민심의 연합을 지향한다.

그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치를 할 것이다.

우리는 대결의 힘보다 협력의 힘을 믿는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의 힘을 모아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24 년 1월 14일

미래대연합(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